

사회

■ 극심한 가뭄 무안·장성 르포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고추밭에서 한 농부가 걱정한 표정으로 말리기는 고추 잎을 살펴보고 있다. /무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추밭 바싹바싹... 한숨짓는 농민

고구마도 못심고 잔디 고사 피해 속출

강수량 평년의 34% ... 병충해도 걱정

“이제는 날씨마저도 농사꾼들의 마음을 몰라주니, 윈...” 지난 9일 무안군 해제면 일대. 광주의 낮 기온이 30.2도까지 오르는 등 따가운 햇빛이 광주·전남 지역을 달군 이날, 해제면 일대에서는 특이한 풍경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한창 수확중인 양파와 마늘, 이제 막 파종한 깻잎과 쪽파,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고추 등 인근 모든 밭에서 스프링클러가 일제히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지난달부터 내리지 않는 비 대신, 농민들이 인근에서 끌어온 물을 밭에 뿌리고 있는 것이었다.

강제면(77·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할머니는 “올해는 날씨가 이상해 고추 모종을 한 달이나 늦은 지난달 중순에서야 3000주가량 심었는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 물을 뿌려주고 있다”며 “오라는 비는 오지 않고 날씨만 이렇게 더워지니 올해는 병충해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 할머니는 전날 이제 막 수확을 마친 3000여평의 양파와 마늘밭에 고구마 등을 심을 요량이었다. 지난 8일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내심 들뜬 마늘이 있었지만 5mm도 채 내리지 않아 파종을 포기하고 무작정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강 할머니는 “비라도 오르고 비닐, 농약값도 날마다 올라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것도 없는 데, 그나마 이제 비도 제때 안내리니 어디 농사 짓겠냐”고 울상을 지었다. 인근 해제면 유월리 강성진(67)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3500여 평의 밭에 심은 고추가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밭에서 살다시피하고 있다. 그는 수일 전 쪽파를 파종했으나 비가 내리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다가 물을 뿌리고 있다. 강씨는 “아무리 스프링클러를 많이 설치해 물을 뿌려도 구석구석 물이 고루 퍼지지는 않는다”며 “농민들에게는 비 소식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달 말에는 비가 상당히 내리니 걱정말라”는 기자의 말을 듣자 “폭우처럼 쏟아지는 장마비는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만 준다. 파종한 지 얼마 안

된 씨앗들은 발아가 썩고, 발아가 되더라도 장마가 끝나면 병충해가 온다”며 되레 핀잔을 줬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은 농작물에게 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5~6월 내내 계속되고 있는 봄 가뭄 때문이다. 지난 5월 광주·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고작 41mm로 평년(119.8mm)의 34% 수준에 그쳤다. 장성군 삼서면의 상당수 잔디 농가들도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무더운 날씨와 가뭄 탓에 수확 후 이식 작업을 해둔 잔디들이 말라 죽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못했다. 공현자(여·52·장성군 삼서면)씨는 “논 잔디는 수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밭 잔디는 스프링클러나 수로 시설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비만 기다리고 있다”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병든 노모 보살피러 갔다...

강진서 조립식 주택 100세 어머니·아들사망 100세 노모를 보살피러던 70대 아들이 화재로 어머니와 함께 숨지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후 2시23분께 강진군 군동면 안동마을 한 조립식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100세를 넘긴 어머니와 70대 아들이 연기에 질식사 사망했다. 이 불로 이모(여·102)씨와 어



목숨 앗아간 굴착기

트럭에 실고 가다 승용차 덮쳐 운전자 사망

트럭에 실려 있던 굴착기가 떨어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10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장성군 진원면 평촌사거리에서 고모(55)씨가 운전하던 4.5t 트럭과 주모(여·38)씨의 오프로드 승용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트럭에 실려 있던 굴착기가 승용차 위

로 떨어지면서 승용차 운전자 주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트럭 운전자 고씨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었다가 트럭 위에 있던 굴착기가 승용차를 덮친 것이 아닌가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광양 라이온스파 두목 5년 선고

총학 장악 행동대장 징역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최근 폭력단 구성 및 집단 패싸움, 유흥가 장악, 이권계 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양 라이온스파 두목 주모(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흥가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같은 과 행동대장급 간부 김모(52·고흥군 점안면)씨를 현주조 물방파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10분께 순천시 왕지동 광주1지법 순천지원 서쪽 출입문에 휘발유 1통(9.8L)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버스를 타고 순천에 도착, 조려

중 이권에 개입해 집단 패싸움을 하거나 조직 간 대립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행동대장 등 일부 조직원들은 광양 모 대학에 입학한 뒤 8년간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조직원 등을 지속적으로 학생회장으로 추대하는 방법으로 학교행사비 4억 원 상당을 갈취해 일부를 조직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양경찰은 올 초 광양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55명을 폭력혐의 등으로 불검아 이중 두목 주모씨 등 9명을 구속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민형배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중)는 최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주민을 상대로 한 구청장과의 대화 등 행사에서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민청장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산구 민원실장 정모(48)씨와 홍보팀장 이모(41)씨, 비서실장 김모(42)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민청장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5월18일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난 1월27일 가진 연두순수사에서 김 의원의 업적을 주민들에게 알린 혐의다. /윤현석기자 chad@kwangju.co.kr

백화점 '5억 못 받아' vs 광주시 '모두 결제' '의문의 상품권' 외상거래 공방 지속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시 광주시가 구입한 의문의 26억원 어치 상품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광주시와 백화점 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광주시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광주지역 모 백화점 측과 광주시측 소송 대리인을 상대로 '상품권판매대금' 소송 8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화점 측은 공판에서 "광주시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실과 업무추진비 법안카드도 모두 2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이중 외상거래 대금 5억82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가 지난 2006년 4억 5000여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1억1700여만원, 2007년에도 6억 3000여만원 중 1억2000만원을 갚지 않는 등 지난 6년간 모두 5억원이 넘는 외상대금이 쌓였다"며 "회계연도 예산보다 초과 사용한 부분 등을 다음해 예산으로 결재해줬기 때문에 외상대금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경인기자 kki@

순천지원 전문 방화

경찰, 50대 불검아

순천경찰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출입문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김모(52·고흥군 점안면)씨를 현주조 물방파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10분께 순천시 왕지동 광주1지법 순천지원 서쪽 출입문에 휘발유 1통(9.8L)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버스를 타고 순천에 도착, 조려

동거녀 살해 '항혼 만남'의 비극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영성)는 10일

항혼에 만나 함께 새출발을 했던 여성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동기부 살해한 70대 남성을 구속 기소. ○경찰에 따르면 조모(71)씨는 지난달 12일 밤 10시에 담양군에 사는 A(여·68)씨를 찾아가 둔기 등으로 때려 죽이려 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2006년 2월 본처가 사망한 후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모든 재산을 처분, 아파트를 연어 동거를 시작했지만 지난 2009년 10월부터 A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버거해왔고. /윤현석기자 chad@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2타경 730 1 해남군 화산면 해장리 9 231㎡ 대 단독주택 10,500,900 건물매각, 제치외 채권 등 11,500 원 2012타경 891 1 완도군 보림면 정자리 798-9 595㎡ 대 62,981,000 일괄매각 2012타경 976 1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84 22512㎡ 임야 10,130,400 2012타경 1696 1 진도군 일회면 삼막리 1271-223 192㎡ [조서지분330분의18지분전부, 하미정, 하상수, 하미라, 하상구각지분330분의12지분전부] 전 303,52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740 [중복] 2 동소 산79-1 7798㎡ [산79-10번지외지분통일] 대 3,517,28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054 3 동소 산79-10 632㎡ [조서지분22분의3지분전부, 하미정, 하상수, 하미라, 하상구각지분22분의2지분전부] 임야 5,216,000 일괄매각, 분묘소 재할 4 동소 산79-1 73㎡ 전 4,205,6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동소 산79-1 49㎡ 도로 1,941,700 일괄매각 6 동소 산79-1 661㎡ 전 4,447,9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8416 1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2-10 241㎡ 제치외 주차장 12.1㎡-기계기구복합채 77,537,200 일괄매각, 제치외 건물포함 동소 산79-1 280㎡ 전 2,0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139 1 해남군 신이면 대진리 232-4 612㎡ 담 13,46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산914-5 1948.5㎡ 담 33,124,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375 1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252 1693㎡ 전 33,381,5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450 1 해남군 문내면 총평리 434 3224㎡ 전 32,2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산622 1643㎡ 담 18,858,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474 1 해남군 해남읍 관천리 556 1266㎡ 전 33,381,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286-2 1979㎡ 담 21,76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535 1 진도군 일회면 석교리 242-3 139㎡ [김금단 지분139분의68전부] [건물은매각대상아님] 대 9,112,000 2012타경1788[명 9,112,000] 2 진도군 일회면 상안리 1133 1117㎡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대 5,026,500 2012타경1788[명 5,026,500] 2012타경 1696 1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45 2079㎡ [묘목은대 전 58,2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740 [중복] 2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290-1 2241㎡ 담 17,9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산1047-1 1679㎡ 담 13,096,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2011타경 8416 1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2-10 241㎡ 제치외 주차장 12.1㎡-기계기구복합채 동소 산79-1 280㎡ 전 2,0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산79-1 32 56㎡ 제치외 축양장 165㎡ 전 2,543,400 일괄매각, 목축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산113 235㎡ 제치외 축양장 등146.4㎡ 전 2,543,400 일괄매각 동소 산113 165㎡ 도로 1,941,700 일괄매각 동소 산113 191.4㎡ 전 4,205,6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산2-11 237㎡ 공장및광물채탄지담당제6대 조제의한기계기구복합채;별치외건물 77,537,200 건물포함